소백산 자락 구인사 '환희心' 70년 역사 되새겨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는 6월 20일 개산 70주년을 맞아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전서 '광복 70주년 세계평화 국민화합 기원 및 구인사 개산 7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사진 오른쪽)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에게 네팔 지진피해 성금 1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개산 70주년 기념법회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가 산문을 연지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쳤다.

주 행사는 6월 20일(음력 5월 5일) 구인사 광명전서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복 70주년 세계평화 국민화합 기원 및 구인사 개산 70주년 기념대법회'이다.

특히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종단 발전의 비전 4개항을 선포했다. 김학송 천태종 참의원장(한 국도로공사 사장)이 발표한 비전을 살펴보면 △자비와 지혜 발현하는 삶 성취 노력 △3대 지표(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통한 불국정토 구현 △주경야선의 수행종풍 생활화해 대승보살도 실천 △인류 평화와 국민 화합, 복지와 문화 융성 국가 건설, 남북 평화통일 헌신 등 4개 항이다.

법회는 천태종 도용 종정 스님의 법어로 시작됐다. 도용 스님은 "여래의 청정 법신 걸림이 없어 중생들의 인연 따라 응해주시니 불자들이여, 감로의 법문 늘 설하시는 눈앞에 부처님을 바르게 보라. 일구월심 중생제도 간곡한 부촉 소백산 연화지에 아로새겨져 일흔 송이 하얀 연꽃 피어났구나. 악한 세상 맑히고 어두운 마음 밝히려는 거룩한 그 뜻을 받들어 따르라"고 법어를 내렸다.

이어 총무원장 춘광 스님도 기념사를 통해 "대조사님께서 지으신 초암은 단순한 수행처가 아니라 일체중생의 귀의처이자 만생명이 해탈 성불하는 도량이다. 구인사는 소백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법계에 중중무진의 도량으로 시현되고 있다"며 "천태종은 구인사 개산 70주년을 계기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행로를 개척해 나갈 것이며 인류의 평화와 법계의 안녕을 위한 천태불자들의 노력이 만인의 행복으로 회향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중국불교협회 부 비서장 창짱(常藏) 스님(북경 영광사 방장), 일본 천태종 종무총장 기노시타 쟈쿠슈운 스님, 정계 인사 등 각계의 축사도 이어졌다.

1만 사부대중 '자비의 삶' 등 4개항 비전 선포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네팔 돕기 1억 원 전달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천태종이 우리 민족 전통의 계승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며, 중생 구제 실천을 통해 복지국가를 실현해 가는 길에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구인사가 찬란한 불교문화를꽃피우는 문화 융성의중심이 되어주시고, 상생과 화합의 시대를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은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의 개산 70주년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모든 종단과 함께 축하를 드리고, 지난 연등회 때 봉행한 무차선 대법회에 보내주신 천태종도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구인사는 한국의 대표적 사찰 중 한 곳으로 자리잡았으며, 상월 원각 대조사께서 첫 발을 내딛었던 그 원력으로 오늘에 이르렀기에, 앞으로 천태종 사부대중의 역량이 사회에 긍정의 힘이 되도록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창짱(常藏) 스님은 "중、한 불교의 법의가 오래도록 길이 유존하고, 중、한 양국이 세세대대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축원한다. 나아가 황금유대적 우호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일본 천태종 종무총장 기노시타 쟈쿠슈운 스님도 일중한불교우호교류협의회 이사장 타케카쿠쵸(武覺超)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우리들은 국가는 달라도 천태대사를 조사로 받드는 불교교단"이라며 "혼미한 오늘날의 세계정세에 그 보살도의 가르침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법회가 천태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축사에 이어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부처님이 탄생한 국가인 네팔의 지진 피해의 조속 복구를 위해 전국 천태종 각 사찰에서 모금한 성금 1억 원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회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불교지도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장윤석 새누리당 불자회장 등 국회의원, 단양군 관계자, 한광수 금강대 총장, 이봉춘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구인사 개산 70주년을 축하했다.

국제학술대회

"구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진 성스러운 도량입니다."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는 6월 19일 천태종 총무원과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이 충북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개최한 '한 · 중 · 일 3국 천태종 총본산의 개산과 수행종풍'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구인사는 개산조인 상월대조사의 생존시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현재에 있어서도 한국의 다른 사찰과는 달리 수천여 명이 상주하면서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어떤 사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인사만의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천태종이 중창된 후 본격적인 대조사의 사상과 이념에 의한 불교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삼대지표에 의한 새 불교 운동의 전개였다"며 "대조사는 애국불교 · 생활불교 · 대중불교라는 3대지표로서 종단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했다"고 주장했다.

기념음악회

국내 최대 관음성지로 성장한 사부대중의 원력을 찬탄하는 불음의 하모니가 소백산 자락에 울려 퍼졌다. 6월 19일 오후 7시,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된 개산 70주년 음악회에서다. 세계평화와 국민화합의 기원을 담은 구인사 개산 70주년 음악회에는 천태종 말사 10곳(관문사 · 구강사 · 광수사 · 광법사 · 삼태사 · 영춘지회 · 황덕사 · 정광사 · 황룡사 · 삼천사) 합창단원 300여 명이 무대에 올라 장엄함을 연출했다. 이날 총지휘는 영춘지회 권준대 지휘자가 맡았다. 또한 테너(정우진 · 한정일 · 정무시 · 박윤규), 바리톤(김재일 · 조승완), 소프라노(황혜진 · 장지영) 등 성악가와 현대오케스트라의 합연이 더해져 음악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음악회의 문을 연 것은 안동 해동사선여회. 붉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양손에 부채를 든 채 무대에 오른 선여회는 전통 국악가락에 맞춰 부채물결을 만들어냈다.

특별사진전

행사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기념사진전이다. 6월 12일부터 천태종중앙박물관 3층 1전시실에서 구인사 개산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전이 열렸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구인사의 지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300여점이 전시됐다.

이 사진들은 상월원각 대조사가 창건한 구인사의 초가 모습에서부터 지금까지 성장한 시점까지 과정을 △구봉팔문 연화도량 △초가삼간 수행도량 △천태종 근본도량 △3대 지표 실천도량 △미래불교 견인도량 등 5개 주제로 나뉘어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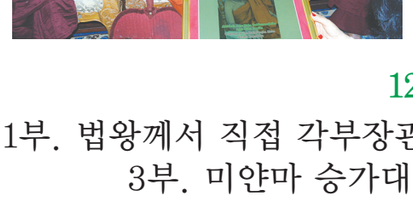
박물관장 장호 스님은 개회사에서 "한 채의 초암에서 대도량이 되기까지의 장엄한 역사를 전시한 사진으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종단의 중창 의의와 대조사님의 구세중생의 원력을 배우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단양 구인사=김주일 기자

世界佛教 法王廳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2월 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9월 30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였기에 모든 직무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